

경영학과 명예교수 폭언논란

장비슬 기자 eva6155@khu.ac.kr

【서울】경영학과에서 인적자원관리 강의를 담당하는 장영철(경영학) 명예교수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내부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장 교수에 대한 증언은 지난달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해당 글은 인적자원관리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장 교수의 수업 태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8월 15일 장 교수는 메일을 통해 수강 학생들에게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할 것을 부탁했다. 한 달이 지난 9월 13일, 학생들에게 유튜브 구독을 인증하라는 메일을 다시 보냈다. 또 9월 29일 장 교수는 본인이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회의 행사에 참여하면 추가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메일로 공지했다. 추가점수는 ▲등록 시 3점 ▲등록하고 1일 참가 시 6점 ▲등록하고 2일 모두 참가 시 10점으로 학생들에게 점수 부여를 위해 참가 인증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장 교수는 인증 사진에 대한 제출 방법과 기한을 따로 공지하지 않은 채 10월 28일 인증 사진을 메일로 제출한 학생에 한해 추가 점수를 부여했다고 알렸다.



장영철(경영학) 명예교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대학주보DB)

글쓴이는 “회의 참석에 대한 등록 인증이 수업 시간에 이뤄졌고, (인증 사진 제출) 기한 공지가 없었기에 수업 시간에 진행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성적과 관련된 일임에도 교수님 혼자 기한을 정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교수는 출결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학생에게 “죽을래”와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장 교수는 수강 학생들에게 메일을 통해 “내 세대에선 이 말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말”이라며 해명했다. 우리신문은 장 교수가 논란에 대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보낸 메일을 입수했다. 해당 메일에서 장 교수는 “나를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 행정실을 통해 들었다”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사안이고

나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 아닌 곳으로 올라온 글이기에 무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글을 올린 사람들은 시험 끝나고 내게 직접 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글을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면 한 번의 불장난으로 치부하겠다”며 최초 글쓴이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메일을 통해서 한 학생의 실명을 밝히며 “특정 학생이 글을 올린 것이 맞다면 찾아와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영대학 학생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해 학생들의 의견을 경영대학 행정실에 전달했다. 12월 23일에는 인적자원관리 강의 관련 학과장 주재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 두 사람이 의견을 발언하고

앞서 장 교수에게 해당 글의 작성자로 공개 지목받은 학생의 의견을 학생회장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학과 학과장 양대규 교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교과목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학과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관련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영대학 내 모든 교원에게 해당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교수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은 구전들이나 입소문들에 대해선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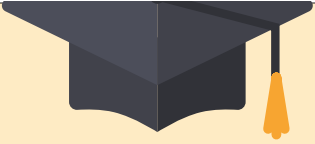
서울총학 법률지원 도입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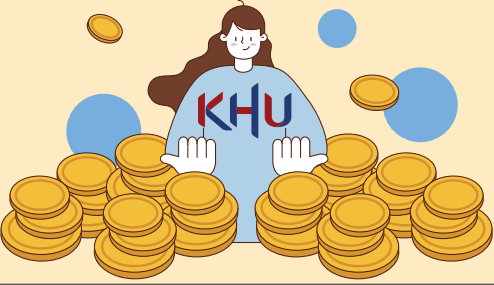
지난 11월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법률 지원 프로그램 ‘경희의 변호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희의 변호사’는 원룸 임대차 계약,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교통사고, 일상적 다툼 등 법적 자문이 필요하지만, 법무법인을 찾기에 현실적 부담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법률대리 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자문 프로그램이며 ▲거주 ▲아르바이트 ▲온라인 ▲저작권 ▲교내 (성)범죄 ▲일상생활 중 법률 분쟁(교통사고, 재물과손 등) ▲기타 등 대학생과 관련된 교내 법률문제에 관해 법률 자문이 가능하다. 법률 자문을 원하는 학생은 서울캠 총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희의 변호사’ 공용 메일(kyungheelawyers@gmail.com)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총학 학생법률지원단의 실무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자문이 이뤄지며 사건 성격에 맞게 담당 변호사가 배정된다. 양 캠퍼스 학생 모두 접수 가능하나 같은 시기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캠 학생을 우선 상담한다.

▶4면으로 이어짐



2022-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안내 및 지급기준



포인트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 2022. 03. 01. ~ 2022. 12. 13. 기간 내 취득 실적 (단, 2022-1학기 포인트 기인정내역 제외)
- **신청가능 포인트** : 최소 100,000포인트부터 최대 2,000,000포인트까지
- **포인트 합산 장학금 규모** : 100,000원부터 2,000,000원까지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포인트 환산기준** : 1포인트 1원
-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 단, 일부 생활비 장학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 동일한 내역으로 타 장학 수혜시 모자이크장학 수혜불가
- **포인트 인정 기준**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에 의거하여 각 분야, 항목, 등급별로 취득한 실적으로 **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인정(휴학 중 취득 실적 불인정)
 - 포인트 인정 대상기간 내 취득 실적만 포인트로 인정
 -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표는 장학팀 홈페이지 참조
 -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원성적 기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인 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신청기간 : 2022. 12. 12.(월) ~ 2023. 01. 08.(일) 24:00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인포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2-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하기

②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취득한 실적 증명

- 제출기한 : 2022. 12. 12.(월) ~ 2023. 01. 08.(일) 24:00

-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비대면 제출 원칙/제출 전 서류 제출방법 관련 단과대학 행정실 공지 확인)

- 서류 위조 혹은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장학은 환수되며 해당 학생은 모자이크장학 추후 지원 불가

포인트 인정 처리

- 단과대학 : 실적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 학생지원센터 : 포인트 내역 검토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 지급일 : 2023. 02월 중 (학기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